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yards rake in newbuilding deals worth up to \$673m

한국조선해양이 총 2,880억원 규모의 선박 3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라이베리아, 오세아니아, 아시아 소재 선사로부터 17.4만CBM급 LNG운반선 1척, 4만CBM급 LPG선 1척, 5만DWT급 PC선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LNG선 2척, LPG선 1척에 대한 옵션도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고 보도됨. (TradeWinds)

VLGC spot earnings push beyond \$110,000 as inefficiencies linger

VLGC(Very large Gas Carrier) spot 운임이 일일 11만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됨. 발틱거래소(Baltic Exchange)의 VLGC 지표에 따르면 일일 운임은 110,300달러로 지난 달 보다 +7% 상승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Adnoc delays Abu Dhabi offshore sour gas project tender process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Adnoc)가 Dalma offshore sour gas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자들의 입찰 기한을 최소 1월 말까지 연장했다고 보도됨.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1월 24일 까지 참여자들은 조정된 가격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Yangzijiang, LNG탱크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Yangzijiang이 Gerry Wang의 Tiger Gas 계열사인 Tiger Clean Energy로부터 25,000DWT급 LNG tank container 운반선 2척을 추가 수주했다고 보도됨. Yangzijiang은 지난해 6월 Tiger Clean Energy로부터 동형선 2+8척을 수주한 바 있으며 선박 인도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동성화인텍, 삼성중공업에 초저온 보냉재 공급

동성화인텍은 삼성중공업과 550억 2,4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LNG운반선 및 에탄운반선용 초저온보냉재 공급계약이며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도됨.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2,532억 7,178만원 대비 21.7% 규모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두산인프라코어, 지난해 중국서 굴착기 판매 '10년 내 최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10년 내 최대 굴착기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고 보도됨. 2020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굴착기 18,686대를 판매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2.4% 증가했다고 보도됨.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굴착기 시장에 진출한 해외 기업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3%대에서 현재 23%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보도됨. (이데일리)